

서울시, 전주남부시장 벤치마킹

청년몰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 배우러 방문

대한민국 경제수도인 서울시가 전주시의 경제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튜링기 행정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 공무원 9명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전주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대표단의 이번 전주방문은 청년몰과 야시장 조성 이후 대한민국 전통시장 활성화 대표사례로 자리매김한 전주남부시장의 우수사례와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배우,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서울시 대표단은 남부시장 청년몰과 야시장을 둘러보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서울시 방문단은 남부시장 상인들과 청년몰 상인들에게 청년몰이 들어선 이후 기존 상인들의 갈등요소 및 해결방법, 기존 상권 매출의 변화 여부, 기존 상인들의 청년몰 방문 고객 유인 노력 등에 대해 질문했다. 또, 야시장 매대운영자 선정과 취급 품목 선정, 기존 상인들과의 융합 노하우 등을 배웠다. 또한 전주시 관계자들에게 향후 청

년몰과 야시장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과 청년몰 및 야시장 활성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말 전주남부시장 청년몰을 찾아 서울청년허브센터 활동가와 남부시장 청년몰 대표, 전주청년네트워크 회원, 전주시 청년다움마당 위원 등 5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청년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양 자치단체 간부공무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와 건강먹거리 등 5개 협력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시간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전주시와 서울시의 5개 협력사업은 △전주-서울 간 건강먹거리 연결망 구축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위한 청년교류 △지역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위한 협력 △사회적 경제 발전 및 복지지원 공유를 통한 협력강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도시디자인 정책공유 등이다. 특히 양 도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문서상 협약에 그치지 않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날 중 각 분야별 공동 협의체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보,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시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 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 강화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기관 내부 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기타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

을 청구한 행위일체가 해당된다. 2016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제43조의 2)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이 5천만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수급자나 그 가족 및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5백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방문, 우편, 인터넷 신고가 어려울 경우 담당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은 전화(033-811-2008)로 가능하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발굴조사 남고산성 동포루지 규모·축성방법 등 확인

전주시는 남고산성(사적 제294호) 동포루지 발굴조사에 대한 현장 설명회와 학술 자문회의를 8일 남고산성 동포루지 현장에서 개최했다. 남고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지난 1990년대에 서문지와 서암문지에 대한 발굴조사로 형태와 규모 축조시기 등이 일부 밝혀진 바 있지만 성벽과 내부 건물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남고산성의 동포루지로 추정되는 지점과 그 주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동포루지의 존재 여부 및 형태, 규모, 시기 등을 파악해 향후 보존 및 정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됐다. 또 남고산성 성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남고산성의 축조시기와 축조기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발굴조사를 진행한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 김승욱)은 이번 조사에서 2차례에 걸쳐 축조가 이루어진 석축성벽과 이 성벽의 바깥쪽에 쌓은 17기의 치(雉) 시설, 치 상단에 양호하게 남아 있는 초석 건물지를 발견하는 학술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석축성벽은 성벽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그 축조기법이 다르고, 일부 구간은 현재의 성벽 하층에 선행하고 있던 또 다른 성벽이 확인돼 두 차례에 걸쳐 성벽의 축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또 기반층을 계단식으로 절토한 후 내탁기법으로 축조된 성벽의 경우 선행 성벽은 잡석을 정연하게 채워 내탁부를 형성했고, 후대 성벽은 잡석과 토사를 섞어 내탁부를 형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성벽을 바깥쪽으로 돌출되도록 쌓아 적을 전면과 좌우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인 치(雉) 시설은 산성의 석축성벽을 쌓은 이후 그 성벽에 덧대어 바깥쪽에 다듬은 돌과 흙을 이용해 장방형으로 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의 규모는 초석의 형태로 보아 정면 37간, 측면 17간의 누각 형태로 추정되며 치의 테두리 상단부는 여장의 모습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치의 건물지 내부에 다량의 목탄과 고열에 노출돼 변색된 석재 등이 퇴적되어 화재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팀은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처음 축조된 성벽과 치 시설은 조선시대 전기 무렵에 후대에 축조된 성벽과 치 시설은 기록에서 보이듯 19세기 초반 무렵에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치 시설에 건축된 초석건물은 형태와 위치 등으로 보아 포루지였을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수 시 전통문화과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남고산성 동포루지의 규모와 실체, 성벽의 축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발굴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복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부안 양계장 화재 발생 병아리 2만6000마리 소사

부안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아리 2만6000여마리가 소사했다. 9일 낮 12시56분께 부안군 행안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양계장 5동 중 1동이 전소되고 태양광 설비 등이 불에 타 2억7800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진수 기자

중장비 기사 석산 매몰돼 사망

지난 9일 오후 4시 40분께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의 한 석산에서 중장비 3대가 돌무더기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크레인 1대와 덤프트럭 1대, 천공기 1대가 갑자기 무너진 돌무더기에 깔리면서 매몰됐다. 사고 직후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곧바로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천공기 운전자 박모(46)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돌무더기에 깔려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석산 상부에서 발파 작업을 마치고 석산 아래로 내려오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대에서 먹는 짜장면

지난 7일 일일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에서 오감봉사단과 주스키이 티온 관계자들이 직접 짜장면을 만들어 장병과 장병 부모 등 1000여 명이 먹고 있다. <사진=육군35사단 제공>

여성 상대 강도행각 30대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8일 십야간 길을 걷는 여성을 뒤쫓아 물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술집 앞길에서 A씨(20·여)의 입을 틀어막고 99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A씨를 발견하고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25분 가량 A씨를 미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채무금 변제, 가족 부양 등 압박으로 고민하던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중시닝시, 전주 방문 교류협력 모색

전주시는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청해성 시닝시 대표단이 우호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8일 이틀간 전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시닝시는 중국 청해성의 성도(省都)로 중국의 천연목장인 청장고원(타벳고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시닝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전주시와 경제, 문화·관광, 교육 분야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오는 8월 열리는 하도국제(夏都國際)제미나에 전주시를 초청, 시닝시의 대외개방 확대와 국제교류도시간 경제무역협력 및 민간우호교류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다른 주제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2016 시닝 국제포럼과 실�크로드 도시의 시장 회담을 주제로 8월 2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개최될 예정이다. 민선3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무한한 자연자원의 보고이자 2100년의 유구

한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시닝시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와 닮은꼴"이라며 "양 도시가 꾸준히 교류를 추진한다면 상생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닝시 인민정부 진성화 비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전주의 명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면서 "전주시는 문화예술의 매력이 넘치는 도시, 시민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시닝시와 교류의 폭을 넓혀 상생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영재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전주지방법원

◇심판
사건 2015년민118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1. 오영형(520925-4*****)
주소: 전주시완산구 흑석1길 88, 가동 504호(서서학동, 대야청산아파트)
2. 김용(90921-4*****)
주소: 전주시완산구 흑석1길 88, 가동 504호(서서학동, 대야청산아파트)
청구인들의 송달장소: 전주시덕진구 들사평1길 22-1(덕진동1가)

피상속인 망 오유정(890816-4*****)
2013. 11. 20.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완산구 흑석1길 88, 가동 504호(서서학동, 대야청산아파트)

주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오유정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5. 12. 2.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사건 청구는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상속재산목록
1. 작곡재산
가. 부동산 없음
나. 금전채권 없음
다. 자동차 없음
라. 유채동산 없음

2. 소극재산
가. 채권자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
채무액 금11,006,359원 및 이자
채무의종류: 구상금
나. 기타 청구인들이 알 수 없는 피상속인 일체의채무

2016. 3. 24. 판사 허운범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